

태영건설 (009410.KS)

일회성 요인에도 컨센서스 부합

Spot Comment | 2019. 8. 16

Analyst 이민재 02)768-7895, minjae.lee@nhqv.com

-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 1,121억원(+8.4% y-y), 영업이익 1,313억원(+6.5% y-y)으로 컨센서스 부합. 부문별 매출액은 건설 8,528억원(+11.7% y-y), 환경 1,630억원(+32.4% y-y), 방송 648억원(-40.7% y-y), 레저 198억원(+1.3% y-y). 상반기 신규수주는 약 2조원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수주 2.3조원의 80% 이상을 달성. 연간 목표 2.5조원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 참고로 주택부문 신규수주는 약 1.3조원
- 건설부문은 연결기준 영업이익 1,285억원(+15.1%), 영업이익률 15.1%(+3.3% y-y)를 기록. 이는 창원 중동 유니시티의 매출本格화 때문. 반면, 환경부문은 대손충당금 설정 등 일회성 비용을 반영하여 연결기준 영업이익 17억원(-93.3% y-y), 영업이익률 1.0%(-19.6%p y-y)로 부진. 1분기 환경부문 실적개선의 주요 요인이었던 예코시스템은 2분기 매출액 276억원(+0.3% q-q), 당기순이익 170억원(-4.1% q-q) 기록
- 지난 8월 1일 머스트자산운용은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지분을 15.2%까지 확대. 경영참가 주요 내용으로 1)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2) TSK코퍼레이션 지분가치 제고, 3) SBS미디어홀딩스와 관련 계열사 구조 변화, 4) 블루원, 태영인더스트리 등 가족간 계열분리 이슈, 5)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을 공시
- 2019년 실적 기준 PER 4.1배, PBR 0.8배 수준

태영건설 2분기 실적 Review (K-IFRS 연결)

(단위: 십억원, %)

	2Q18	3Q18	4Q18	1Q19	2Q19P			컨센서스	3Q19E
					발표치	y-y	q-q		
매출액	1,026	934	1,089	845	1,112	8.4	31.6	1,011	1,024
영업이익	123	117	102	111	131	6.5	18.7	129	140
영업이익률	12.0	12.5	9.4	13.1	11.8			12.8	13.7
세전이익	107	112	38	101	125	16.8	23.2	N/A	137
(지배)순이익	58	66	1	36	71	23.3	95.8	N/A	82

주: IFRS 연결기준. 자료: 태영건설, Fn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종목 투자등급(Stock Ratings) 및 투자등급 분포 고지

1. 투자등급(Ratings):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

- Buy : 15% 초과
- Hold : -15% ~ 15%
- Sell : -15% 미만

2. 당사의 한국 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8월 9일 기준)

• 투자 의견 분포

Buy	Hold	Sell
76.3%	23.7%	0.0%

- 당사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은 변경되는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투자 의견 비율을 주간 단위로 집계하여 기재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태영건설'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당사 공식 Coverage 기업의 자료가 아니며,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공식 투자 의견,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